광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절반 위험 방치

안전은 뒷전 … 눈치보는 구청들

설치검사 지원 법개정 움직임에
차일피일 미루고 최대한 버티기

광주지역 자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중 전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설치시 전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설치검사) 의무화' 가 시행됐다. 이 법 제정 전의 기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각 자치구는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설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설치검사 비용을 자치구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기관의 설치검사시 오래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의 경우, 검사 결과가 시설 교체나 폐쇄 등으로 결정되면 구청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구가 직접 관리하는 광주지역의 어린이공원(2010년 12월 기준)은 ▲동구 5곳 ▲서구 59곳 ▲남구 25곳 ▲북구 95곳 ▲광산구 97곳 등 총 281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6.6%에 불과하며 최근에도 큰 변동이 없다.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전문 안전검사기관이 실시하며, 비용은 종류에 따라 한 기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들은 설치검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사실상 80~90년대 설치된 놀이시설이 많아 간단한 수리를 넘어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교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지 20년이 넘도록 전문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심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딸을 둔 이모(여·38)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면 구청이 먼저 나서 설치검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비용이 설치검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내일은 보건의 날 '보건의 날'(7일)을 이틀 앞둔 5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 금연 클리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사채용 뒷돈·교직원 떡값 … 8백만원 챙긴

'뇌물 초등교장' 고발

광주교육청 감사 적발

'광주시교육청 일선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자체 감사로 학교장의 비위가 불거져 교육계가 '비위 복마전'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광주 한 초등학교장을 뇌물수수 · 요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에 해당 교장의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결과 이 학교장은 전임을 비롯해 현재 학교까지 2곳에서 특기적성 강사 채용 등과 관련해 강사 6명으로부터 357만원을 받는 등 수수액이 800여만원에 달했다. 특기적성 강사 등을 선발하면서 특정 인사를 면접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교직원 45명으로부터 44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 교장이 인사,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학습, 학습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금액을 잘게 쪼개는 방법으로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를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고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前 교육장 등 5명 거짓말탐지기 조사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

'광주시교육청 각급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광주일보 5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5일 교육계 관계자 5명이 뇌물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전 교육장 A씨를 포함한 행정직 공무원 2명, 전직 초등학교장 2명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의계약을 맺은 해당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A씨 등의 진술 진위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교육장 재직 당시 현안사업비를 일부 학교에 지원해준 뒤 해당 공사업체가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로부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새시·펜스·전기공사 등 개보수공사업체와 책상·걸상 등 기자재납품업체 10곳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버릇없이 군다"

술마시던 후배 흉기로 찔러

광양경찰은 5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찌른 신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광양시 광영동 한 주택 김모(43)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이날 김씨 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방에 있던 신씨의 또 다른 후배(47)는 만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고로쇠에 사카린

광주식약청, 인터넷 판매한 60대 적발

늦은 겨울과 봄 사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이 검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사카린이 함유된 고로쇠 수액을 팔아 102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A(6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사카린 0.0037%가 들어 있는 고로쇠 수액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표기한 뒤 4.3ℓ 들이 70병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지리산과 백운산, 백암산,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총 9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했으며 이 중 A씨가 판매한 고로쇠수액에서만 사카린이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함유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100배 정도 단맛을 내기 때문에 고로쇠 수액 특유의 단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주문이 많아 여러 곳에서 수액을 조달받았는데 사카린이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순부터 전국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발 800m 이상의 지리산에서 채취한 수액을 최고로 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토바이 날치기 하룻밤 사이 3건

광주에서 하룻밤 사이 3건의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4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던 유모(여·57)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이날 새벽 3시30분께도 서구 화정동 한 음식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4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백모(여·26)씨의 손가방을 낚아 채 도주했다.

또 전날 밤 10시40분께에는 남구 봉선동 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1대가 든 장모(여·47)씨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의약품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복지부·식약청 공동조사 … 검찰 전담수사반 가동

정부가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감지된 데다,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실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 건의 관련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에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검찰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며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의약품 유통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친구집서 "숨바꼭질 하자" 금품 훔쳐

쌍나팔

○…광주동부경찰은 5일 친구 집에 놀러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속여 금품을 턴 손모(17·광주 모 고교 2년)군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손군 등은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모 아파트 오모(17)군의 집 안방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5일부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7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집안 형편이 비교적 좋은 중학교 동창 등을 물색해 집으로 놀러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 술래가 된 뒤 친구의 눈을 피해 범행.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나우찬 〈8286〉 김종두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